

2016년 5월 23일 새벽 정리 말씀(편집본)

또 새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니까 너무 기분 좋지요?

사람이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백년 앞질러 가고, 십년 앞질러 가고.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의 발달, 시대의 발전을 평가할 때 얼마나 발전되었느냐는 ‘했느냐, 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면 압니다. 시대가 발전되었으면 행한 것이고, 발전되지 못했을 때는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성자가 왔을 때 그 밑에 살던 사람들은 그마 만큼 발달되었던 것입니다.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했을 때 시대가 발달되었다고 평가하고, 안 했을 때는 시대가 발달하지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개인도, 어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역사의 오래된 전통만 자랑하지 말고 짧은 시대를 보냈어도, 짧은 역사를 보냈어도 발전하고 발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짧은 역사에 많은 것을 했으니까 자랑할 것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빨리 했을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에게 보여 주려고 막 하다보니까 빨리 한 것입니다. 미국이 옛날에는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리지널로 굉장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 보여 주려고 좋아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고, 안 나타납니다. 인생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안 나타나 줍니다.

정말 하나님은 참을성이 많으시고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정말로 절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절제하시는 하나님! 참음의 신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전 지 전 능 하신 가 자꾸 연구를 하고, 자꾸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살려면, 지금 하나님이 강림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배우고,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온 거예요. 진짜! ‘나’ 진짜 왔잖아요. 알겠습니까? 나는 가상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섭리의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인류를 구원하러 와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면 구원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양식을 주면 먹고 살아납니다. 일단은 삽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강림한 것입니다. 내가 오듯이 강림했습니다.

요즘 말하는 것이, 실감! “사람들이 실감을 못 느끼고 산다. 체험을 못하고 산다.”

요즘에 ‘실감, 실감.’ 하는데, 여러분을 실감 있게 해 주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실감 있게 느끼게, 정말로 하나님은 99%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만 안 보여 주고, 몸은 안 보여 주고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력자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은 가르쳐 줍니다. 내가 봤으면 봤다고 가르쳐 주겠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을 실감하라. 이 역사를 실감하라. 결혼했으니까 사랑을 실감하라. 여자랑 사니까 여자를 실감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폐단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서 가고 있는데 실감을 못 한다. 체험을 못했다. 체험이 안 된다. 그리고 실감을 못 느낀다.”

“실감하라. 체험하라. 그리고 징조를 보라.”

하나님의 얼굴, 몸뚱이만 안 보이지 만물로, 여러 가지로, 음성으로 다 나타내서 보여 줍니다. 얼굴만 안 보여 주는 것입니다.

백지장 뒤에 숨어서 다 말도 하고, 뭐든 다 보여 주고, “내 숨씨는 거기에 있지 않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봤잖아. 그게 내 숨씨다.”

작품을 보여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구상이 아니라 하나님 구상이라니까.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시중들고 한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따라 하기만 해도 그것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을 같이 따라하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섭리사에. 겁나는 사람, 무서운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 너무 열심히 하고 정말로 대단합니다. 사랑 세계도 대단하고 불같고, 아주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했으니까 하나님과 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옛날식같이 그냥. 실제로 사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나, 그렇게 하다가 왔습니다. 산에서! 산에서 하나님만 안 봤지, 실제 살면서온 것입니다.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지금도 하잖아요. 계속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선생님 설교를 들으면 ‘실감’이 있잖아. 실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나라의 일이 더 급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지금 사는데, 사는 법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주와 같이 사는데, 그 사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백마 탄 초인과 같이 살고 싶어 합니까? 산다니까! 선생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까? 산다니까! 아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다가 서로 싸우고 서로 끝날까봐 겁난다는 것입니다.

“만들어라. 만들어라. 만들어라. 옛날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사는 법을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나이 안 먹은 사람들도 지금은 시대가 가기 때문에, 시대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초근 초근히, 매일 생활 가운데 배우는 것이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워야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내가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더 잘해 주고, 더 좋아하고, 더 열심히 하고 이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호기심 갖고서 봤다가는 실패를 많이 합니다. 잘 봐야 됩니다.

“호기심은 흥분제다.” “그와 같이 흥분제를 먹은 거나 똑같다. 호기심은 흥분제다.”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닦아진 다음에 결혼해야 됩니다. 제대로 닦아진 다음에. 제대로 본 다음에.

그때는 정말로 서로 잘 해 주고, 인격적으로 하고, 위하고, 섬기고, 받들고, 정말로 편안하게 해 주고 이

런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는 것을 우리 인간과 사는 것에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려면 하나님과 사는 법을 알고, 하나님과 사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법을 배우고,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지식. 바울 선생은, “고상한 지식이다. 아주 고상한 지식이다. 신비한 지식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선생님 이름에는 쪼갬 석(析) 자가 있기 때문에 쪼개 버립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과 같이 살고, 사람과 어울리고, 사람과의 모든 에티켓을 지키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지식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늘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 받고는 모릅니다. 내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계시를 받으려면 힘드니까, 말을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내가 늘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압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지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낼지. 그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못하나? 니 몸뚱이 갖고서 할 수 있는데.” 대화하고 말하는 것, 그리고 매너,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 형제들을 대하는 것, 이런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인격, 하나님 대하는 것,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착한 마음이 없느냐?” 이런 것만 이야기합니다.

걸핏하면 성질 화르르 내고, 걸핏하면 화내고, 걸핏하면 뭐하고, 성질내고. 그것이 속에 암이 들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을 떼어 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섬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형제들끼리 지내보니까 성질을 화르르 내고, 화르르 내고, 교만이 확 나오고, 자존심이 확 나오고, 찌찌 확 나오고, 뭐이 있으면 성질 확 내고 “그것이 아니라니까.” 하고, 이런 것이 암이 들은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을 안 빼내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완벽하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 하라. 하나님처럼 완전하도록 하라.”

“하나님처럼 완전하도록 하라. 하나님처럼 완전하도록 하라.”

웃으면서 지혜롭게, 웃으면서 지식 있게, 그렇게 해서 서로 화평하게 살아야 하는데 어떤 문제만 일어나면 확 성질내고, 어떤 문제만 일어나면 확 안색 변해 버리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가인아, 왜 안색이 변함은 어쩍이뇨? 네가 죄를 다스려라. 네 죄 네가 다스리면서 살아라.” 그래서 순진한 사람을 자꾸 중시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순진한 사람.

오래 되니까 으스스대고, 오래되니까 찌찌거리고, 오래 되니까 그러는데 나는 싫습니다.

그래서 자꾸 착하고 순진하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와야 됩니다.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이런 것을 다 고쳐야 돼. 그래야 내가 강림해서 살지, 같이 못 살아. 어디라고? 만군의 하나님인데.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은 봉사라서 살지만 나는 못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부가 되기.

완전히 다 버려야 됩니다. 100%! 100% 버려야 됩니다.

100% 내가 교정하려니까, 책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100% 더 잘 쓰려고 하니까.

“이와 같이 그래야 된다.”

오늘 아침 말씀한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살려면, 강림한 하나님과 살려면, 주님과 살려면. 그래야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만 실감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만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 없애야. 자기에 있는 모든 구정물을 다 없애야.

배설물을 버리듯이 싹 버려 버려야 됩니다. 깨끗이. 이런 삶을 살아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그것 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딱 하나 보고 삽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도, 인물을 갖추어도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못 갖추면 안 됩니다. 성격, 더러운 성격, 더러운 고집, 냄새 폴폴 나는 그 인분과 같은 그런 것, 아집, 혈기, 인상 이런 더러운 것,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과 의논하면서 살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까? 내가 기도해 주고 끝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은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 하늘의 지식이고, 하늘에서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을 대하려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을 다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임금을 모시려고 해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 대통령과 악수 한번 하고 인사하려고 해도 6개월 동안 연습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지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시간을 주고, 4000년 동안 구약 시간을 줬다고 했습니다. 이를 모릅니다.

금 매끼 칠해서 살지 말고, 그날에는 공력을 볼 테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의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쳤나 안 고쳤나 형제들끼리 한번 지내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혈기가 없어졌나. 혈기를 사 간다고 해도, 1억을 준다고 해도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로 사람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그리고 모든 게으름도 없애고 열심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말씀을 듣고 가는, 모든 이 하늘의 신부들이라 칭하는 이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늘 모시고 섬기고 살면서 자꾸 고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모든 자들이 이 시대의 말씀을 듣고 각각 그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이들 위에 충만하고 영원할지어다. 아멘.

말씀 여기서 끝났습니다.

잘 있어요.